

정약용과 래지덕의 효변설 비교* **

임재규***

주제분류 유교철학, 한국철학, 역학

주요어 정약용, 래지덕, 효변설, 변괘, 변상

요약문

다산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효변설은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그런데 다산은 1808년에 지은 『주역사전』과 1821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학서언』에서 효변설의 역사적 전승과 관련해 서로 다른 언명을 하고 있다. 즉 『주역사전』에서는 효변설이 한대(漢代) 이후로 전승이 끊어졌다고 언급했지만, 『역학서언』에서는 이와 상반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역학서언』의 「래씨역주박(來氏易註駁)」이 한 예이다. 이처럼 『주역사전』과 『역학서언』에 나타나는 효변설의 역사적 전승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체로 『주역사전』과 『역학서언』의 성립 연대가 다르기 때문일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다산의 효변론의 의의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산의 효변론과 래지덕의 효변론은 효변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 실제 적용에서는 다른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산은 효변의 적용에 있어서 ‘변괘위주(變卦爲主)’의 효변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래지덕의 ‘변상위주(變象爲主)’의 효변설과는 다른 측면이다. 이 점은 다산 역학의 창조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효변설에 있어서 다산 역학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3-ORS-1110008)

** 이 논문은 2015년 1월 30일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1. 서론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경부(經部) 역류(易類) 첫머리에서 청대 사고관신은 방대한 중국역학사를 총괄하면서 중국역학사의 흐름을 ‘양파육종(兩派六宗)’으로 정리했다. ‘양파’는 상수파(象數派)와 의리파(義理派)이며, ‘육종’은 한대(漢代) 상수로 역을 해석한 전통, 경방과 초연수의 재이설(災異說)에 입각하여 역을 해석한 전통, 진단과 소옹(邵雍)의 도서학(圖書學)에 근거하여 역을 해석한 전통, 왕필이 제창한 노장으로 역을 해석하는 전통, 호원과 정자의 유학의 의리로 역을 해석하는 전통, 이광과 양만리의 역사적 사실로 역을 증명하는 전통 등이다.¹⁾

중국역학사에 대한 사고관신의 이러한 관점은 매우 유의미한 통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산 정약용도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형성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또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역학 저작 중 주요한 저작을 거의 읽었거나 혹은 그 책의 개요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다산의 『역학서언(易學緒言)』은 다산의 중국역학사에 대한 이러한 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²⁾ 따라서 『역학서언(易學緒

1) 王雲五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臺灣商務印書館, 1978), 「四庫全書總目提要」, 一, 經部, 易類一, 2쪽. “左傳所記諸占, 蓋猶太卜之遺法. 漢儒言象數, 去古未遠也. 一變而為京、焦, 入於祿祥, 再變而為陳、邵, 務窮造化, 易遂不切於民用. 王弼盡黜象數, 說以老莊. 一變而胡瑗、程子, 始闡明儒理, 再變而李光、楊萬里, 又參證史事, 易遂日啟其論端. 此兩派六宗, 已互相攻駁.”

2) 『易學緒言』의 총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정조집해론(李鼎祚集解論)», 「정강성역주론(鄭康成易注論)», 「반고예문지론(班固藝文志論)», 「한위유의를론(漢魏遺義論)», 「왕보사역주론(王輔嗣易注論)», 「한강백현담고(韓康伯玄談考)», 「공소백일평(孔疏百一評)», 「당서괘기론(唐書卦氣論)»,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 「사수고점박(沙隨古占駁)», 「오초려찬언론(吳草廬纂言論)», 「래씨역주박(來氏易註駁)», 「이씨절중초(李氏折中鈔)», 「육덕명석문초(陸德明釋文鈔)», 「곽씨거정박의(郭氏學正駁義)», 「왕채호이평(王蔡胡李評)», 「복서통의(卜筮通義)», 「주역답객난(周易答客難)», 「현산역간(姁山易柬)», 「다산문답(茶山問答) (『易學緒言』, 『定本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言』에 나타나 있는 다산의 중국역학사 인식을 통해 다산 역학의 역학사적 위치를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양파육종과 연관시켜 고찰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고찰에 기반해 볼 때 다산 역학은 양파 중 상수파에 속하며, 육종 중 한대(漢代) 상수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산은 『역학서언(易學緒言)』에서 이정조의 『주역집해(周易集解)』에 대해 “괘변(卦變)과 효변(爻變)의 법칙, 호체(互體)와 복체(伏體)의 예, 교역(交易)·변역(變易)·반대(反對)·반합(辟合)의 묘가 하나라도 갖추어 있지 않음이 없다.”³⁾ 라고 했으며, 또 “오늘날의 학자들이 진실로 『주역』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오직 이정조의 『주역집해(周易集解)』 10권을 보배로 삼아야 할 것이다.”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산의 이러한 인식은 이정조의 『주역집해(周易集解)』에 다산 역학의 핵심 이론인 역리사법의 원형이 모두 담겨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⁵⁾

양파육종에서 의리파는 기본적으로 『주역(周易)』 괘효사의 형성보다는 이미 형성된 괘효사에 어떤 의리가 담겨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상수파는 기본적으로 『주역(周易)』 괘효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의리파와 상수파는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고, 다산 역학은 상수파의 지향점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리파에 속할 수 없다.

본 논문은 다산의 이러한 상수학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역리사법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효변론과 명대의 대표적인 상수학자인 래지덕의 효변설의 비교를 통해서 다산의 효변론이 어떤 독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⁶⁾ 이를 통해 다산의 『주역(周易)』 이해에 있어서

3)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3쪽. “然卦變爻變之法, 互體伏體之例, 交易變易反對辟合之妙, 無一不露其豹斑.”

4)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3쪽. “今之學者誠欲學易, 唯取李鼎祚集解十卷, 以爲拱璧.”

5) 임재규, 「다산 정약용의 中國易學史 인식 - 『易學緒言』을 중심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진학자 연구발표회, 2015 참조.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논지의 전개를 위해 다산 역학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리사법의 상수학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주역(周易)』의 원문은 약 4,919자로 구성되어 있다.⁷⁾ 5,000자도 채 안 되는 『주역(周易)』에 대해 약 3,000여 년 동안 완전한 해석이 존재하지 못했던 것은 『주역(周易)』이 다른 경전과 달리 난해한 상징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⁸⁾ 물론 『주역(周易)』이 상징체계가 아니라 단순히 점친 기록일 뿐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하지만 『주역(周易)』을 단순히 점친 기록으로 인식할 경우 우리가 『주역(周易)』을 연구하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갑골 복사는 분명 점친 기록이며 따라서 갑골 복사의 해석에 있어서 그 문자가 해독이 되면 해석의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점친 기록은 점친 기록일 뿐 점친 기록에 그 어떤 상징적 의미나 철학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주역(周易)』을 점친 기록으로 인식한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해지며 약 3,000여 년의 역학사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주역(周易)』이 점친 기록이 아니라⁹⁾ 상징체계라고 인식하는 것은 역학사 연구의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역(周易)』은 상징체계이다’라는 명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는 2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주역(周易)』의 64괘가 8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역(周易)』 64괘 괘사와 384효 효사가 이러한 8괘의 조합으로 이루

6)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정약용과 래지덕의 효변설을 비교 연구한 논문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7) 한글 2010의 문서정보에 의한 글자수이다.

8)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 北京: 中華書局, 2009, 248쪽. “是故易者,象也; 象也者,像也.”

9) 鄭吉雄, 「論《易經》非占筮記錄」, 『周易研究』 2012年第2期 참조.

어진 64괘에 대한 상징적 해석이라는 점이다. 전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8괘가 세계를 구성하는 8가지 상징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사전』에 의하면, 복희씨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또 땅을 굽어 살펴서 세계의 존재를 8개의 상징으로¹⁰⁾ 설명하고자 했다.¹¹⁾ 주나라의 문왕은 이러한 8괘를 조합하여 64괘를 만들었고, 따라서 8괘의 조합인 64괘를 상징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역(周易)』 괄효사가 점친 기록이 아니라 문왕과 주공으로 대표되는 서주 초기 주나라 지식인에 의한 64괘의 상징적 해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64괘가 이미 존재하고 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64괘를 관찰하고 해석한 결과가 바로 『주역(周易)』 괄효사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64괘가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64괘에 대한 해석도 자연스럽게 상징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괄효사와 상징체계의 상관관계는 『계사전』에서도 잘 나타난다. “군자는 평소에는 상정을 관찰하여 그 역사(易詞)를 완미하고, 행동을 할 때는 변화를 관찰하여 그 점을 완미한다.”¹²⁾ 여기서 ‘상정’과 ‘역사(易詞)’의 관계가 앞에서 언급한 상징체계와 괄효사의 관계에 대응한다. 이것은 『계사전』의 『주역(周易)』에 대한 관점과 일치하며, 동시에 상수학의 일반적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이는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양과’ 중 상수파의 지향점과 일치하며, ‘육중’ 중 한대(漢代)의 상수학과도 일치한다.

10)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 北京: 中華書局, 2009, 246쪽.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11) 이는 불교에서 지수화풍(地水火風)을 세계 존재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지수화풍이 불교의 세계 존재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이듯이 8괘도 중국 고대의 세계 존재를 설명하는 8가지 요소가 된다.

12)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 北京: 中華書局, 2009, 225쪽. “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한대(漢代) 상수학은 『주역(周易)』이 형성된 시기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주역(周易)』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청대 사고관신의 한대(漢代) 상수학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다. 한대(漢代) 상수학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역(周易)』의 괘효사를 상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수의 방법에는 호체론, 괘변론, 효변론, 괘기론, 납갑론 등등 다양한 방법론이 포함된다. 다산의 역리사법도 결국 한대(漢代) 상수학의 계승과 창조적 변용에 다름 아니다. 역리사법의 추이론, 물상론, 호체론, 효변론이 모두 한대(漢代) 상수학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의 역리사법 중 물상론은 다산 역학이 지향하는 목표에 해당하며, 나머지 추이론, 호체론, 효변론은 이 물상을 찾기 위한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산 역학의 성격을 ‘상수학’으로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산에 의하면, 『주역(周易)』의 괘효사는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주역(周易)』 해석은 결국 괘효사가 나타내고 있는 상징을 찾아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 상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이 추이이고, 호체이고, 효변이다.

추이(推移)는 64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며, 그 핵심은 14벽괘에서 50연괘로의 추이이며, 따라서 50연괘는 모괘(母卦)에 해당하는 벽괘가 반드시 존재하며 그 모괘에서 자괘(子卦)인 연괘로 추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산은 이러한 형성과정을 통해서 역사(易詞)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해간다. 그리고 벽괘는 14벽괘 그 자체로 추이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이를 통해서 벽괘의 역사(易詞)도 추적해낼 수 있다.¹³⁾ 호체는 소성괘인 8괘에서 대성괘인 64괘로 형성됨에 있어서

13)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4쪽. “推移者何也?冬至一陽始生, 其卦爲復, 爲臨爲泰, 以至於乾, 則六陽乃成. 夏至一陰始生, 其卦爲姤, 爲遯爲否, 以至於坤, 則六陰乃成, 此所謂四時之卦也. 小過者大坎也, 中孚者大離也. 坎月離日, 積奇爲閏, 此所謂再閏之卦也. 四時之卦, 京房謂之十二辟卦, 今擬除乾坤二卦, 別取再閏, 以充十二辟卦. 十二辟卦, 分其剛柔, 衍之爲五十衍卦, 此所謂大衍之數五十. 此之謂推移也.”

이미 형성된 대성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대성괘는 기본적으로 상괘와 하괘로 구성되지만, 이미 형성된 대성괘를 관찰했을 때, 대성괘 내에는 새로운 소성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즉, 기존의 상괘와 하괘 외에 2,3,4효로 구성된 소성괘가 나타나고, 3,4,5효로 구성된 소성괘도 나타나게 된다. 이 2,3,4효와 3,4,5효로 구성된 새로운 괘를 호체라 한다.¹⁴⁾ 이렇게 되면, 하나의 대성괘는 기존의 존재에 새로운 존재가 더해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괘의 확장을 호체로 이해할 수 있다. 다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호체뿐만 아니라, 네 효, 다섯 효, 여섯 효로 구성된 대호(大互), 1,2효와 3,4효, 그리고 5,6효를 묶어서 보는 겸호(兼互), 괘를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반대로 볼 때 생성되는 호체인 도호(倒互), 상괘와 하괘의 자리에 기반해서 숨어있는 괘를 일컫는 위복(位伏), 상호(上互)와 하호(下互) 중 하나만 거꾸로 뒤집어 보는 반합(辟合), 상호(上互)와 하호(下互)를 이용해 새롭게 괘를 만드는 양호작괘(兩互作卦)까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¹⁵⁾ 추이, 호체에 이어 효변은 역리사법 중 가장 독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효변(爻變)의 의미는 효가 변한다는 것으로 양효는 음효로 음효는 양효로 변함을 나타낸다.¹⁶⁾ 다산은 ‘효(爻)’라는 개념에 그 자체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14)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4쪽. “互體者何也?重卦既作,六體相連,自二至四,自三至五,各成一卦,此之謂互體也.”

15)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45~48쪽. “重卦既成, 六畫相連, 於是乎互卦起焉. 大體者, 互體之大者也, 唯坎離取焉. 兼體者, 通一卦而取互者也. 重卦既成, 位分三等, 兼三位而兩之, 亦八卦也. 倒體者, 卦才欲全用也. 伏體者, 筮主於數, 據其位而考其數, 坎離之形, 雖不現於其外, 坎離之數, 實伏其中. 辟合者, 婚媾之象也. 故凡婚媾之卦, 其少男少女, 多一倒而一正. 兩互作卦者, 既取互體, 自然成卦, 非苟爲是工巧也.”

16) 다산 효변론에 있어서 爻와 畫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다산은 『周易四箋』에서 384爻를 해석하면서 모두 爻가 변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畫이 변한다고 표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건괘 초구에서 다산은 “此乾之姤也. 初爻變”라고 쓰고 있다.(『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06쪽) 즉 “건괘 초구는 ‘初爻’가 변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지, “‘初畫’이 변한 것이다”라고

본다.¹⁷⁾ 그리고 효제의 ‘구(九)’와 ‘육(六)’도 각각 노양과 노음을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¹⁸⁾ 따라서 다산의 효변론에 의하면, 건괘(乾卦)의 초구(初九)는 건괘(乾卦)가 구괘(姤卦)로 변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다산의 이러한 효변론은 역학사에서 나타나는 기존의 해석과 매우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해석은 건괘(乾卦) 초구(初九)는 건괘를 구성하는 여섯 효 중의 하나로 여섯 효 중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표시였다. 즉 효의 위치를 나타내는 초, 2, 3, 4, 5, 상이라는 글자와 음, 양을 나타내는 육(六)과 구(九)라는 글자가 조합해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기존의 해석에서 육(六)과 구(九)는 다산의 해석과 달리 음과 양을 나타내는 표지일뿐 음효가 양효로 변하고 양효가 음효로 변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산의 효변론은 매우 독창적인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다산은 자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주역사전』과 다산의 중국역학사 비평서라 할 수 있는 『역학서언』에서 가장 독창적인 해석으로 평가받고 있는 효변론의 연원에 대해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 『주역사전』에 나타나는 효변론을 통해 다산의 효변론의 연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다산과 래지덕 효변설의 동이점 비교 분석

1) 효변에 대한 다산의 인식

다산에 의하면 효변(爻變)은 서법(筮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법(筮法)은 『주역』의 점치는 법을 의미한다. 서법(筮法)은 『계사전』에 그 원형

적지 않았다. 건괘 초구뿐만 아니라 384괘 전체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 17)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49쪽. “爻者,變也,不變非爻也.”
- 18)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49쪽. “九者老陽也,六者老陰也.老無不變,則九六者既變之名.不變非九六也.”

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4영18변(四營十有八變)’이다.¹⁹⁾ ‘4영18변’을 거치면 하나의 괘를 얻게 된다. 이 하나의 괘는 본괘(本卦)가 되고, 본괘의 6효 중 변효(變爻)가 있게 되면 변괘(變卦)인 지괘(之卦)를 얻게 된다. 변효가 없을 경우에는 본괘로 점을 치게 되지만, 변효가 있을 경우는 그 변효의 수에 따라 본괘와 지괘를 함께 고려하여 점을 치게 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점법은 『역학계몽』에 자세히 나온다.²⁰⁾ 그런데 ‘4영18변’을 거쳐 얻게 되는 괘는 확률적으로 변효가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렇게 변효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바로 효변이라 할 수 있다. ‘4영18변’을 거쳐 얻게 되는 결과는 6·7·8·9가 되며, 7·8은 불변효이고 6·9는 변효이다. 왜냐하면 『주역』에서 6은 노음이고, 9는 노양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영18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숫자가 초효가 9, 2효가 7, 3효가 7, 4효가 7, 5효가 7, 상호가 7이면, 이 괘는 본괘가 건괘(乾卦)가 되며 지괘가 구괘(姤卦)가 된다. 즉 초효인 9가 변효가 되어 양은 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괘는 구괘(姤卦)가 되는 것이다. 『역학계몽』에 의하면, 이처럼 변효가 하나일 경우에는 본괘의 해당 효사로 점을 치게 된다.²¹⁾ 즉 건괘(乾卦) 초구인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라는 효사로 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법에서 유래된 효변은 본래 점을 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점을 쳐 괘를 얻었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19)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 北京: 中華書局, 2009, 234~236쪽.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分而爲二以象兩, 掛一以象三, 揲之以四以象四時, 歸奇於扚以象閏, 五歲再閏, 故再扚而後掛.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乾之策二百一十有六, 坤之策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期之日, 二篇之策, 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物之數也. 是故四營而成易, 十有八變而成卦.”

20) 胡方平, 『易學啓蒙通釋』, 『四庫全書薈要』, 吉林人民出版社 影印本, 1997, 9-88~92쪽 참조.

21) 胡方平, 『易學啓蒙通釋』, 『四庫全書薈要』, 吉林人民出版社 影印本, 1997, 9-89쪽 참조.

관련이 있다. 이처럼 점을 친 후 그 결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춘추좌씨전』과 『국어』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 『춘추좌씨전』과 『국어』에는 대략 20조항의 점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진 경중(陳敬仲)의 예가 있다. 다산의 「춘추관점보주(春秋官占補註)」의 글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진나라 여공이 경중을 낳았다. 경중이 어릴 때, 주나라 태사가 『주역』을 가지고 여공을 뵈었는데 여공이 그로 하여금 (경중의 장래에 대해) 점을 치게 했다. 점친 결과는 관지비(觀之否)이었으며, 태사가 말하기를 “이는 『주역』의 ‘나라의 빛을 볼 것이며 왕을 만나봄이 이롭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진나라를 대신해 나라를 세울 것이며 이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이며 자신이 아니라 그의 후손 일 것입니다. 빛은 멀리 있지만 그로부터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²²⁾

이 인용에서 주의할 점은 주나라 태사가 『주역』을 가지고 점을 쳤는데, 그 결과가 관지비(觀之否)라는 것이다. 관지비(觀之否)는 관괘(觀卦)의 육사효(六四爻)가 변한 것으로 효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은 곧 ‘4형18 변’을 거쳐 얻은 괘의 6효 중 하나의 효가 변했을 때는 본괘의 변효에 해당하는 효사로 점을 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나라 태사는 관괘(觀卦)의 육사효(六四爻)의 효사인 ‘나라의 빛을 볼 것이며 왕을 만나봄이 이롭다.’를 가지고 경중의 장래를 점친 것이다. 물론 이 효사가 구체적으로 경중의 장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해석자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그 해석의 근본은 『주역』의 해당 효사임은 분명하다.

『춘추좌씨전』과 『국어』에는 이러한 ‘관지비(觀之否)’라는 형식의 점례가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민공(閔公) 원년(기원전 661년) 필만지서(畢萬

22)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16쪽. “陳厲公生敬仲. 其少也, 周史有以周易見陳侯者. 陳侯使筮之, 遇觀之否, 曰是謂觀國之光, 利用賓于王. 此易詞此其代陳有國乎? 不在此, 其在異國. 非在其身, 在其子孫, 光遠而自他有耀者也.”

之筮)에 준지비(屯之比)가 등장하고,²³⁾ 희공(僖公) 15년(기원전 645년) 백희가진지서(伯姬嫁秦之筮)에 귀매지규(歸妹之睽)가 등장한다.²⁴⁾ 이를 통해 보면, 춘추시대에 『주역』의 점서법에서 효변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산은 춘추시대의 이러한 효변에 대해 매우 독특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효변이 서법과 관련이 있지만, 나아가 『주역』 역사(易詞)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다. 즉 다산은 춘추시대의 효변에 대해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과 다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산의 독특한 효변설 형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결론적으로, 다산에 의하면 춘추시대의 효변은 서법과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주역』 역사(易詞)도 이러한 효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고 보았다.²⁵⁾ 그 근거는 이러한 효변이 『주역』의 서법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쓰인다는 점에 있다. 『춘추 좌씨전』에는 위에서 예로 든 서법에 나타나는 효변과 함께 서법과 관련이 없이 『주역』의 경문을 인용할 때도 이러한 효변을 쓰고 있다. 소공(昭公) 29년(B.C.513년)에 실린 채묵(蔡墨)의 사례,²⁶⁾ 선공(宣公) 12년(B.C. 597년) 지장자(知莊子)의 말,²⁷⁾ 양공(襄公) 28년(B.C.545년)에 유길(遊吉)

23)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18~219쪽 참조.

24)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21~224쪽 참조.

25) 『周易四箋Ⅰ』,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49~50쪽. “九者, 老陽也. 六者, 老陰也. 老無不變, 則九六者, 既變之名. 不變, 非九六也. 筮法三掛皆得天數, 則其數爲九. 三掛皆得地數, 則其數爲六. …… 其曰初九者, 謂初畫動而爲陰也, 其曰初六者, 謂初畫動而爲陽也, 則周公撰詞之初, 原主既變之體, 而用其物象. 不知爻變, 則不可以讀周公之詞也.”

26)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39쪽. “秋, 龍見于絳郊. 晉魏獻子問於蔡墨. 墨對曰:”周易有之. 在乾之姤曰:‘潛龍勿用’, 其同人曰:‘見龍在田’, 其大有曰:‘飛龍在天’, 其夬曰:‘亢龍有悔’, 其坤曰:‘見群龍無首吉’, 坤之剝曰:‘龍戰于野’. 若不朝夕見, 誰能物之.”

27)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27쪽. “知莊子曰:”此師殆哉. 周易有之. 在師之臨, ‘師出以律, 否臧, 凶.”

의 말²⁸⁾ 이 그 예이다. 이러한 용례는 실제 점을 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주역』의 경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산의 효변설에 의거하면, 준괘(屯卦) 초구는 결과적으로 준지비(屯之比)라는 괘를 의미하고, 따라서 『주역』 384효는 결과적으로 384괘를 의미하게 된다.²⁹⁾

다산은 춘추시대의 이러한 ‘모지모(某之某)’의 효변에 기반해서 자신의 효변론을 주장한다. 다산의 효변에 대한 인식은 확고해서 자신의 역학이론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변설이 한대(漢代) 이후로 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역』의 경문을 해석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漢代 이후 효변설은 전승되지 않았다. 이것이 『주역』의 이치가 어두워진 이유이다. 효(爻)가 변하지 않으면 추이의 방법도 통할 수 없다. 이것이 추이의 방법이 폐기된 이유이다. 효(爻)가 변하지 않으면 『설괘전』의 물상도 모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설괘전』의 용도가 폐기된 이유이다. 효(爻)가 변하지 않으면 호체의 물상도 모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호체가 폐기된 이유이다.³⁰⁾

다산은 이러한 효변설이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 물상, 호체 등도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효변설은 다산 역학의 핵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8) 『周易四箋Ⅱ』, 『定本 與猶堂全書 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33쪽. “鄭伯使游吉如楚. 楚人還之. [欲鄭君之親來朝] 吉歸曰:”楚子將死矣. 不脩其政德, 而貪昧於諸侯. 以逞其願, 欲久得乎? 周易有之. 在復之頤曰:‘迷復, 凶’ 其楚子之謂乎? 欲復其願, 而棄其本, 復歸無所.”

29) 효변에 대한 이러한 다산의 인식은 역학사의 주류적 해석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30) 『周易四箋Ⅰ』,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1~52쪽. “自漢以來, 爻變之說, 絕無師承. 此易之所以晦盲也. 爻不變, 則推移之法, 亦不可通. 此推移之所以廢. 爻不變, 則說卦物象, 亦皆不合. 此說卦之所以廢. 爻不變, 則互體之物, 亦皆不合. 此互體之所以廢.”

2) 『역경집주(易經集註)』에 나타난 래지덕의 효변설

래지덕은 명대의 대표적인 역학가로 다산이 주목한 중국역학사의 주요 인물 중의 하나이다. 다산은 그의 『역학서언』에서 「래씨역주박(來氏易註駁)」을 지어 래지덕의 역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비평을 가하고 있다. 다산은 「래씨역주박(來氏易註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구당(瞿塘) 래지덕(來知德, 1525~1604)의 자는 의선(矣鮮)이다. 『역경집주(易經集註)』 16권이 있다. 『대전(大傳)』³¹⁾ 중에서 오로지 ‘착(錯)’ 과 ‘중(綜)’ 두 글자³²⁾에 집중하여 스스로 지구 해석의 표준³³⁾을 세웠다. 음과 양이 변하여 바뀔을 착(錯)이라고 하고, 위와 아래가 뒤바뀔을 중(綜)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경의 뜻을 해석했다. (그러나 추이(推移)와 괘변(卦變)의 설을 엄격히 배척하여, 단사와 효사의 뜻이 한 글자나 한 구절도 맞는 것이 없다. 특히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과시하며, 깊이 연구해서 홀로 깨달은 척하여, 얕은 배움과 몽매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가 말한 것을) 참된 지식으로 생각하고 때때로 그를 추종하여 정확(正學)으로 여겼으니, 이 또한 역가(易家)의 큰 폐단이다. 그가 상수(象數)의 근본을 논함에 있어서는 소강질의 선천(先天)의 뜻을 그대로 따랐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설을 조금 변화시켜 정자와 주자를 뛰어넘으려 했고, 또 순상(荀爽)³⁴⁾과 우번(虞翻)³⁵⁾을 모두 없애버리고자 했으니, (이는) 실로

31) 『繫辭傳』을 말한다.(張善文, 『周易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2, 414쪽 참조)
 32)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 中華書局, 2010, 237쪽, “參伍以變, 錯綜其數.”
 33) 『周易』 해석 방법론을 뜻한다.
 34) 荀爽(128~190)은 이름은 諱이고, 후한 潁川 潁陰(지금의 하남성 許昌市) 사람이다. 자는 慈明이고, 荀淑의 아들이다. 費直의 古文易學을 연구하고, 『十翼』으로 경의 뜻을 해설하여 ‘乾坤乘降說’을 주장하였다. 청나라 馬國翰의 『玉函山房輯佚書』에 『周易荀氏注』 3권이 남아 있으며, 孫堂의 『漢魏二十一家易注』에 『荀爽周易注』 1권이 남아 있다. (張善文, 『周易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2, 542쪽 참조)
 35) 虞翻(164~233)은 삼국 시대 오나라 會稽 餘姚 사람으로 자는 仲翔이다. 鄭玄, 荀爽과 더불어 易學三家로 일컬어진다. 『經典釋文·序錄』에 보면 『周易注』 10권이 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당나라 李鼎祚의 『周易集解』에 채록된 것과

역가(易家)의 하승(下乘)이다. (래지덕은) 용경(隆慶, 1567~1573)과 만력(萬曆, 1573~1620) 사이에 주로 활동한 인물로서, 그의 생이 비록 늦은 시기라 할 수 있지만, (세상을) 미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것이 자못 광범위했다. 이제 그의 자서(自序)와 몇 가지 예문을 취하여 소략하게나마 (그가 말한) 이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경구(經句)의 해석한 바는 이미 한 군데도 옳은 곳이 없어 그 수많은 오류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도광(道光) 원년(1821년) 겨울]³⁶⁾

위의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산은 래지덕의 역학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래지덕이 괘변설을 엄격하게 배치하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지덕의 『역경집주(易經集註)』를 살펴보면, 래지덕이 괘변설을 부정하고 있지만, 반면에 다산 역학의 네 가지 강령 중 하나인 효변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고 실제 효사 해석에서 효변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역경집주(易經集註)』에 나타난 래지덕의 효변론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다산의 효변론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래지덕은 『역경집주(易經集註)』의 「래지덕역경자의(來知德易經字義)」에서 효변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청나라 黃奭의 『漢學堂叢書』 및 孫堂의 『漢魏二十一家易注』에 기록된 것이 있다. (張善文, 『周易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2, 770쪽 참조)

- 36)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01쪽. “瞿塘來知德, 【字矣鮮】有《易經集註》十六卷, 專執《大傳》中‘錯綜’二字, 自立詁訓, 陰陽變換曰錯, 上下顛倒曰綜. 以此兩義解釋經旨, 而推移卦變之說, 嚴詞斥黜, 其于象詞爻詞之旨, 一字一句不能偶合. 特其自贊自夸, 有若深究而獨悟者, 故淺學蒙識, 疑有真諦, 往往宗之爲正學, 亦易家之大部也. 其論象數之本, 仍遵邵子先天之義, 而稍變其說, 乃欲跨越程·朱, 掃蕩荀·虞, 實《易》家之下乘也. 本係隆慶·萬曆間人, 其生雖晚, 而惑亂頗廣. 今取其序說法例, 略行疏理. 若其經句所釋, 既無一是, 難舉衆非, 今茲略之. 【道光元年冬】”

효변이라는 것은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이 양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건괘(乾卦)의 초효가 변하면 즉 구(姤)가 되는데, 이는 본괘에서 변한 것이다.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문왕의 괘서(卦序)를 알지 못했다. 가령 준괘(屯卦)와 몽괘(蒙卦)는 서로 종(綜)이 되는 괘로 본래 하나의 괘이어서, 아래에서 위로 볼 때 하나의 괘가 되고 위에서 아래로 볼 때 (또) 하나의 괘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복희문왕 착중도(伏羲文王錯綜圖)에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송괘(訟卦)의 ‘강(剛)이 와서 중(中)을 얻었다.’라는 말은 곧 괘종(卦綜)이지 괘변은 아니다. 이것을 둔괘(遯卦)에서 변해온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앞에서 예를 든) 구(姤)는 변괘가 된다. 효변은 매우 현묘한 이치를 담고 있으니, 효가 변하는 것이 곧 효변이다. 점괘(漸卦)의 구삼에서 세 번째 효는 지아비를 상징하고 (2,3,4로 이루어진 호괘인) 감(坎)은 가운데가 가득 차 있으니 아이를 뱀 부녀자를 상징하는데, 세 번째 효가 변하면 양이 없어져 곤(坤)이 되어 지아비의 위치와는 단절되는 까닭에 (효사에서) ‘지아비가 정벌에 나서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상이 있게 된다.’고 했다. 이미 곤(坤)이 되었으므로 감(坎)의 가운데가 가득 차 있는 상도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효사에서) ‘아이를 뱀 부녀자가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하는 상이 있다.’고 했다. 또 귀매괘의 구사에는 호체(互體)인 감월(坎月)과 이일(離日)이 있어 기일(期日)의 상이 있는데, 구사효(九四爻)가 변하면 순곤(純坤)이 되어 달과 해의 상을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효사)에서 ‘기일을 어기다.’라고 했다. 이 어찌 현묘하지 않은가?³⁷⁾

이처럼 래지덕은 효가 변하는 변괘(變卦)를 효변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효사 해석에 있어서도 이 변괘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합리적인 해

37)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32-9~10쪽; 周立升, 『易經集注導讀』, 齊魯書社, 2009, 81쪽. “變者, 陽變陰·陰變陽也. 如乾卦初變即爲姤, 是就于本卦變之. 宋儒不知文王序卦, 如屯蒙相綜之卦本是一卦, 向上成一卦, 向下成一卦. 詳見前伏羲文王錯綜圖. 如訟之剛來而得中, 乃卦綜也, 非卦變也. 以爲自遯卦變來, 非矣. 如姤方是變卦, 變女之又女, 妙之又妙, 蓋爻一動即變. 如漸卦九三以三爲夫, 以坎中漫爲婦孕, 及三爻一變, 則陽死成坤, 離絕夫位, 故有夫征不復之象. 既成坤, 則并坎中滿通不見矣, 故有婦孕不育之象. 又如歸妹九四, 中爻坎月離日, 期之象也. 四一變則純坤, 而日月不見矣, 故愆期. 豈不玄妙?”

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래지덕은 점괘(漸卦) 구삼(九三)과 귀매괘(歸妹卦) 구사(九四)의 예를 들어 효변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래지덕은 효변은 인정하지만 괘변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송대의 괘변론자들은 문왕이 지은 64괘의 순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괘변설을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즉 래지덕은 「단전」에 나오는 ‘강유왕래설(剛柔往來說)’이 벽괘에서 연괘로의 추이나 연괘에서 연괘로의 추이가 아니라 종(綜)을 이루는 두 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의 인용에서 예를 든 송괘(訟卦)의 「단전」에 나오는 ‘강(剛)이 와서 중(中)을 얻었다.’는 표현은 이른바 괘변론자들이 말하는 12벽괘의 하나인 둔괘(遯卦)의 구삼(九三)이 제2호의 자리로 와서 송괘(訟卦)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 표현은 “수괘(需卦)와 송괘(訟卦)가 서로 종(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괘의 상괘인 감(坎)이 송괘 하괘의 자리로 왔다.”³⁸⁾는 의미이다. “이전의 유학자들은 「서괘」와 「잡괘」의 뜻을 몰라서 우변의 괘변설에 의지해 강(剛)이 유(柔)의 자리에 왔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³⁹⁾ 래지덕의 괘변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다산의 추이설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래지덕은 효변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기반해서 『주역』 경문의 효사를 해석하고 있다. 특히 래지덕은 『역경집주(易經集註)』의 「역학육십사괘계몽(易學六十四卦啓蒙)」편에 64괘 384호의 전체 효변표를 따로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건괘(乾卦)의 효변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⁰⁾

38)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32-101쪽; 周立升, 『易經集注導讀』, 齊魯書社, 2009, 160쪽. “需訟相綜, 需上卦之坎來居訟之下卦.”

39)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32-101쪽; 周立升, 『易經集注導讀』, 齊魯書社, 2009, 160쪽. “前儒不知序卦雜卦, 所以依虞翻以爲卦變, 剛來居柔地.”

乾
 六爻變
 初爻變巽 成姤
 二爻變離 成同人
 三爻變兌 成履
 四爻變巽 成小畜
 五爻變離 成大有
 六爻變兌 成夬

래지덕은 64괘 전체에 이와 같은 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래지덕의 역학에 있어서 효변의 위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위의 표를 보면 래지덕의 효변에 대한 이해와 일반적인 효변론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역학사에 나타나는 효변론은 본괘 + 지괘의 구성을 통해 괘의 전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래지덕은 본괘 + 지괘라는 큰 틀의 변화보다 384효의 효변에 따른 팔괘(小成卦)의 변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효변에 따른 변상(變象)을 통해 효사 해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경집주(易經集註)』에 나타난 구체적인 효변의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준괘(屯卦) 육사(六四)의 “혼인을 구하는” 효사에 대해 래지덕은 “본래의 효가 변하면 가운데의 효는 손(巽)이 되니 장녀가 되고 진(震)은 장남이 되니, 혼인의 상”이라고 풀이했다.⁴¹⁾

40)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32-31~32쪽; 周立升, 『易經集註導讀』, 齊魯書社, 2009, 85쪽.

41)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32-91쪽; 周立升, 『易經集註導讀』, 齊魯書社, 2009, 149~150쪽. “屯 六四: “求婚媾.” 來注:

2. 몽괘(蒙卦) 초육(初六)의 “죽쇄와 수갑을 벗고 나아가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효사에 대해 래지덕은 “효변하면 태(兌)가 되니 휘절의 의미가 있고, (따라서) ‘벗다’의 상이 있다.”라고 풀이했다.⁴²⁾
3. 몽괘(蒙卦) 육삼(六三)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는 효사에 대해 래지덕은 “효변하면 손(巽)이 되니 여자의 상이 있다.”라고 풀이했다.⁴³⁾
4. 수괘(需卦) 상육(上六)의 “구멍에 들어가다.”라는 효사에 대해 래지덕은 “효변하면 손이 되어 들어감의 의미가 있으니 들어감의 상이다.”라고 풀이했다.⁴⁴⁾
5. 송괘(訟卦) 초육(初六)의 “약간의 구설이 있을 것이다.”라는 효사에 대해 래지덕은 “효변하면 태(兌)가 되어 구설의 의미가 있으니, 언어의 상이다.”라고 풀이했다.⁴⁵⁾

이처럼 『역경집주(易經集註)』에는 효변을 통해 경문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산도 이미 『역경집주(易經集註)』의 효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⁶⁾

本爻變，中爻成巽，則爲長女，震爲長男，婚媾之象也。”

- 42)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32-94쪽; 周立升, 『易經集注導讀』, 齊魯書社, 2009, 152쪽. “蒙 初六: “用說桎梏, 以往, 吝.” 來注: 變兌爲毀折, 脫之象也.”
- 43)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32-95쪽; 周立升, 『易經集注導讀』, 齊魯書社, 2009, 154쪽. “蒙 六三: “勿用取女.” 來注: 變巽, 女之象也.”
- 44)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32-100쪽; 周立升, 『易經集注導讀』, 齊魯書社, 2009, 159쪽. “需 上六: “入于穴.” 來注: 變巽爲入, 亦入之象也.”
- 45)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32-101쪽; 周立升, 『易經集注導讀』, 齊魯書社, 2009, 161쪽. “訟 初六: “小有言.” 來注: 變兌爲口舌, 言之象也.”
- 46) 이는 다산 효변론의 연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다산은 1808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주역사전』에서는 효변설이 한대(漢代) 이후로 그 진승이 끊어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역학서언(易學緒言)』 「래씨역주박(來氏易註駁) (1821년

3) 다산과 래지덕의 효변설 비교

다산과 래지덕의 역학은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비슷하다. 『사고전서 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양과육종의 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산과 래지덕은 모두 의리파가 아닌 상수파에 속하고 육종 중에서는 한대(漢代) 상수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역리사법을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주역』의 경문을 거의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래지덕도 자신의 역학이론인 취상설(取象說), 착종설(錯綜說), 효변설(爻變說), 중효설(中爻說)을 이용해서 『주역』 경문을 성공적으로 해석해내고 있다.⁴⁷⁾ 그리고 다산의 역리사법과 래지덕의 역학이론도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역리사법 중의 물상론은 취상설과 유사하고, 추이론은 착종설과 유사하고, 효변론은 효변설과 유사하고, 호체론은 중효설과 유사하다. 물론 다산은 래지덕이 패변설을 엄격하게 배척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하지만, 래지덕은 자신의 논리에 의해 패변설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착종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은 서로 간의 관점이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역학사를 통해 볼 때도 패변설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무수히 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역학이 가지는 독특한 측면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다산의 역리사법과 래지덕의 역학이론 중 ‘효변’에 관한 서로 간의 이동(異同)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산의 효변론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변괘위주(變卦爲主)’의 효변론이라는 점이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다산은 『주역』 384효가 실제로는 384괘가 된다는 점을 효변론에서 강조했다. 그래서 다산 효변론의 요약

완성)에서는 래지덕의 『역경집주(易經集註)』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곧 다산이 『역경집주(易經集註)』의 효변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효변설의 전승과 관련하여 『주역사전』과 『역학서언(易學緒言)』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7) 周立升, 『易經集注導讀』, 齊魯書社, 2009, 77~82쪽 참조.

에 해당하는 「효변표직설(爻變表直說)」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구(九)와 육(六)은 변괘(變卦)를 가르키는 것이 분명하다. 여섯 개의 효(爻)가 변동하면 각각 하나의 괘가 되니, 384효라는 것은 384괘이다. [변괘(變卦)를 일러 효(爻)라고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섯 개의 효가 하나의 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⁴⁸⁾

다산의 이러한 관점은 『주역사전』의 <효변표>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⁴⁹⁾

<爻變表>

乾 初九	☰	爲乾之姤
九二	☰	爲乾之同人
九三	☰	爲乾之履
九四	☰	爲乾之小畜
九五	☰	爲乾之大有
上九	☰	爲乾之夬
用九	☰	爲乾之坤

즉, 건괘(乾卦) 초구(初九)는 실제로는 건지구(乾之姤)가 된다. 건지구(乾之姤)는 건괘가 구괘(姤卦)로 변한 경우이지만, 다산의 효변론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괘(姤卦)가 된다. 다시 말하면, 건괘(乾卦) 초구(初九)는 변괘인 구괘(姤卦)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주역사전』에서 384효의 경문을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준괘(屯卦) 육사(六四)의 “혼인을 구하는” 효사에 대해 다

48)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50~51쪽. “由是觀之, 曰九曰六之直指變卦審矣. 六爻之動各成一卦, 三百八十四爻者, 三百八十四卦也.(變卦謂之爻) 今人欲排比六爻以成一卦之全體, 而可乎?”

49)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49쪽.

산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지금 괘는 수괘(隨卦)이다. 간(艮)의 사위가 여기에 있고 [수괘의 하괘가 도간(倒艮)이다], 태(兌)의 여자는 저기에 있다.[수괘의 상괘가 태(兌)이다] 혼인의 괘는 반합(睥合)을 취한다. [즉 도상(倒象)을 취한다] 유(柔)가 안에서 밖으로 가서 [1이 상으로 감] 마침내 태(兌)의 여자를 얻으니 ‘혼인을 구하는 것’이 된다.”⁵⁰⁾ 즉 다산은 준괘(屯卦) 육사(六四)를 변괘인 수괘(隨卦)로 인식하고 수괘(隨卦)를 기준으로 “혼인을 구하는” 효사를 해석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래지덕이 준괘(屯卦) 육사(六四)가 효변하여 생성된 변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수괘(需卦) 상육(上六)의 “구멍에 들어가다.”라는 효사에 대해 다산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는 수괘(需卦)가 소축괘(小畜卦)로 변한 것이다. 소축(小畜)은 괘(夬)에서 왔다.[상(上)이 4로 음] 유(柔)가 밖에서 오니,[상(上)이 4로 음] 그 뜻이 ‘들어옴’이 된다.”⁵¹⁾ 즉 다산은 수괘(需卦) 상육(上六)을 변괘인 소축괘(小畜卦)로 인식하고 이에 기반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래지덕이 변상을 이용해 해석하는 경우와 다르다.

반면에 래지덕은 같은 효변설이지만 다산의 ‘변괘위주’의 효변론과 달리 ‘변상위주(變象爲主)’의 효변설을 제시한다. 래지덕이 그런 건괘의 효변표를 보면, 초효(初爻)의 변상은 손(巽)이고 이효(二爻)의 변상은 리(離)이고 삼효(三爻)의 변상은 태(兌)이고 사효(四爻)의 변상은 손(巽)이고 오효(五爻)의 변상은 리(離)이고 육효(六爻)의 변상은 태(兌)이다. 래지덕은 이러한 변상을 이용해서 『주역』의 경문을 해석한다. 앞에서 예를 든 준괘(屯卦) 육사(六四)의 효사를 보면, “혼인을 구하는” 역사(易詞)가 있다.

50)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40쪽. “今卦隨也. 艮婿在此[下倒艮], 兌女在彼[隨上兌], 婚媾之卦, 取睥合也.[取倒象] 柔自內往[一之上], 遂獲兌女, 求婚媾往也.”

51) 『周易四箋 I』, 『定本 與猶堂全書 15』,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54쪽. “此需之小畜也. 小畜自夬來[上之四] 柔自外來[上之四] 其義入也.”

본괘인 준괘(屯卦)에서는 상괘가 감(坎)이고 하괘가 진(震)이기 때문에 혼인의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래지덕은 변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즉 육사(六四)가 효변하면 3,4,5효로 구성되는 호체인 손(巽)이 생긴다. 따라서 래지덕은 “본래의 효가 변하면 가운데의 효는 손(巽)이 되니 장녀가 되고 진(震)은 장남이 되니, 혼인의 상”이라고 설명한다. 래지덕의 이러한 해석은 효변으로 인해 생성되는 변괘인 수괘(隨卦)보다 효변으로 인해 생성되는 변상인 손(巽)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실제로 래지덕은 준괘(屯卦) 육사(六四)의 주문(注文)에서 수괘(隨卦)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송괘(訟卦) 초육(初六)에는 “약간의 구설이 있을 것이다.”라는 효사가 있다. 본괘는 상괘가 건(乾)이고 하괘가 감(坎)으로 구설(口舌)이라는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래지덕은 효변을 이용한다. “효변하면 태(兌)가 되어 구설의 의미가 있으니, 언어의 상이다.”라고 설명한다. 즉 래지덕은 효변을 통해 변상인 태(兌)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변괘인 리괘(履卦)를 언급하지 않았다.

3. 결론 : 효변설의 창조적 변용

다산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효변설은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그런데 다산은 1808년에 지은 『주역사전』과 1821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학서언』에서 효변설의 역사적 전승과 관련해 서로 다른 언명을 하고 있다. 즉 『주역사전』에서는 효변설이 한대(漢代) 이후로 전승이 끊어졌다고 언급했지만, 『역학서언』에서는 이와 상반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⁵²⁾ 『역학서언』의 「래씨역주박(來氏易註駁)」이 한 예이다.⁵³⁾ 본론에서 이미

52) 임재규, 「정약용 효변론의 연원에 대한 시론적 고찰」, 다산학 22호, 2013, 331-365쪽 참조.

53)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09쪽. “郭序云:

밝혔듯이 래지덕의 『역경집주(易經集註)』를 보면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주역사전』과 『역학서언』에 나타나는 효변설의 역사적 전승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체로 『주역사전』과 『역학서언』의 성립 연대가 다르기 때문일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다산의 효변론의 의의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산의 효변론과 래지덕의 효변론은 효변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 실제 적용에서는 다른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산은 효변의 적용에 있어서 ‘변괘위주’의 효변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래지덕의 ‘변상위주’의 효변설과는 다른 측면이다. 이 점은 다산 역학의 창조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효변설에 있어서 다산 역학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역학사에 있어서 다산의 효변론은 매우 특색있는 이론이며, 기존의 역설과 많이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표를 통해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래의 표는 『주역』 건괘(乾卦)의 6爻로 현재 통행되고 있는 『주역』의 표준적 내용이다.

<通行本 『周易』 乾卦 6爻>
 初九, 潛龍, 勿用.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九四, 或躍在淵, 無咎.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
 上九, 亢龍, 有悔.

하지만 다산은 위의 표가 『주역』의 본래적 모습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다산이 생각한 『주역』의 본래 모습은 다음의 표이다.

“有爻變之象, 如乾初變即爲姤, 兌初變即爲困之類, 皆杼千古未發, 代四聖欲言.” 駁曰左傳在世, 卽爻變之法, 無以晦矣. 蔡墨對龍乾之姤, 乾之同人, 乾之大有, 乾之夬, 歷歷言之. 竝其變卦, 皆印跡昭然, 何謂爻變之義, 矣鮮發之? 朱子曰遇一爻變, 以本卦之變爻詞占之, 此亦爻變之義, 何謂杼千古未發?” 참조.

<『周易』 乾卦 6爻에 대한 다산의 기본 인식>

乾之姤, 潛龍, 勿用.

乾之同人, 見龍在田, 利見大人.

乾之履,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

乾之小畜, 或躍在淵, 無咎.

乾之大有, 飛龍在天, 利見大人.

乾之夬, 亢龍, 有悔.

위의 표를 보면 앞의 표와 다르다. 즉 이른바 효제(爻題)라는 것이 없고, 효변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다산은 이것이 『주역』의 본래 모습이라 생각했다. 다산의 효변론이 매우 특색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중국역학사를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다산은 기존의 효변설에 대해 자신만의 창조적 변용을 만들어냈다. 이른바 ‘변괘위주’의 효변론이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周易』 乾卦 6爻에 대한 다산의 새로운 해석>

乾之姤 → ☵ = 姤

乾之同人 → ☲ = 同人

乾之履 → ☱ = 履

乾之小畜 → ☴ = 小畜

乾之大有 → ☰ = 大有

乾之夬 → ☱ = 夬

즉 다산은 건괘(乾卦) 초구(初九)는 사실상 구괘(姤卦)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효변설(래지덕의 효변설을 포함하여)과는 다른 차원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다산 효변론의 독자적인 측면이며, 따라서 다산 효변론이 역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김승동, 「毛奇齡과 丁若鏞의 易卦 해석에 관한 비교연구」, 인문논총 제36집, 1990.
- 김영우, 「정약용의 역학 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왕연, 「다산 역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김인철, 『다산의 주역해석체계』, 경인문화사, 2003.
- 다산 정약용 지음, 방인·장정욱 옮김, 『역주 주역사전』, 소명출판, 2007.
- 방인, 「정약용의 「주자본의발미」 연구」, 다산학 19호, 2011.
- 신원봉, 「다산의 역학관 정립에 미친 청대 사상의 영향 - 모기령을 중심으로」, 다산학 3호, 2002.
- 임재규, 「정약용 효변론의 연원에 대한 시론적 고찰」, 다산학 22호, 2013.
- 황병기, 「다산 정약용의 역상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易學緒言』, 『定本 與猶堂全書 17』,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周易四箋 I·II』, 『定本 與猶堂全書 15·16』,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馬端臨, 『文獻通考』, 『四庫全書』 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都絜 撰, 『易變體義』, 『四庫全書』 文淵閣本, 上海古籍出版社 影印本, 2003.
- 王應麟, 『玉海』, 『四庫全書』 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四庫全書』 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沈該, 『易小傳』, 『四庫全書薈要』, 吉林人民出版社 影印本, 1997.
- 丁易東, 『易象義』, 『四庫全書』 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程頤 撰, 王孝魚 點校, 『周易程氏傳』, 北京: 中華書局, 2011.
- 楊萬里 撰, 宋淑浩 點校, 『誠齋易傳』, 北京: 九州出版社, 2008.
- 朱熹 撰, 廖名春 點校, 『周易本義』, 中華書局, 2010.
- 胡方平, 『易學啓蒙通釋』, 『四庫全書薈要』, 吉林人民出版社 影印本, 1997.
- 吳澄, 『易纂言外翼』, 『四庫全書』 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來知德, 『周易集註』, 『四庫全書』 文淵閣本, 驪江出版社 影印本, 1988.

- 胡渭 撰, 鄭萬耕 點校, 『易圖明辨』, 北京: 中華書局, 2008.
- 朱伯崑, 『易學哲學史』, 北京: 華夏出版社, 1995.
- 周立升, 『易經集注導讀』, 齊魯書社, 2009.
- 張善文, 『周易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2.
- 王雲五 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 臺灣商務印書館, 1978.
- 鄭吉雄, 「論《易經》非占筮記錄」, 『周易研究』 2012年第2期.

A Comparative Study on Yaobian Theory of Cheong Yakyong and Lai Zhide

Im, Jaekyu (Seoul National Univ.)

In this article I reviewed Cheong Yakyong(丁若鏞)'s Yaobian(爻變) theory in comparison with Lai Zhide(來知德)'s Yaobian theory. Tasan's theory of interpretation of Zhouyi(Book of Changes) is Yilisifa(易理四法, Four methods of interpretation of *Zhou yi*), that is, Tuiyi(推移, Hexagrams transformation), Wuxiang(物象, Image of things), Huti(互體, Interlocked body), Yaobian. Lai Zhide's theories of interpretation of Zhouyi are Quxiang(取象), Cuozong(錯綜), Yaobian(爻變), Zhongyao(中爻). Cheong Yakyong's Yaobian theory and Lai Zhide's Yaobian theory are similar in the essential part. But Both theories are different in the specific applications. Cheong Yakyong's Yaobian theory is a Biangua(變卦)-oriented, but Lai Zhide's Yaobian theory is a Bianxiang(變象)-oriented. Thus I think that the Biangua-oriented theory is a creative feature of Tasan's Yaobian theory.

Key words: Cheong Yakyong, Lai Zhide, Yaobian, Biangua-oriented, Bianxiang-oriented

임재규 E-mail: sanshan@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5년 04월 25일
계재확정	2015년 05월 21일